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61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1,40-45)

###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1,40-45

### “아픔을 느끼지 못 하는 병”

동료 신부님들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고해성사를 잘 보지 않는다는...’ 또 본당의 한 청년으로부터도 매번 고해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들이라 성사보기가 싫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고해하니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뎠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병\*\*의 증상과 닮았습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발이 문드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고통을,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아픔을 호소하며 도와 달라 손 내미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당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하느님은 우리의 무뎠어진 마음, 완고함 앞에서 그리 힘 센 분이 아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

‘좋은 게 좋은 거지’하는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살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당연함과 익숙함에 속아서 가족과의 기도생활, 성사생활에 소홀하지는 않았나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의식하는 사람만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성숙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은 영적인 나병환자들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면, 언제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기쁨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걸어가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언제나 숨 가쁘게 뛰어옵니다.

(\*\*한센병, 옮긴이 주)

(수원교구 2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 공지사항

※ 2월 12일(일)은 황선기 마티아 신부님의 사제 서품 기념일입니다. 산호세 본당의 목자이신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 2월29일에 개강하는 수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 합시다.

시간: 오전반 오전 10시-12시 / 오후반 오후 7시30분-9시30분

교재: 여정-요한복음

##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 창세 42,1-50,26

### ◆ 성경 퀴즈

\* 창세 42,1-46,7까지 읽고 (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으시오.

1. 야곱은 요셉의 아우 ( )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2. 우리가 아우의 일로 ( )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 달라고 ( )할 때, 우리는 그 ( )을 보면서도 들어 주지 않았지. 이제 이런 ( )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3. 너희 형제들 가운데 ( )를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 두어라.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 )을 가지고 가져라. 그리고 너희 ( )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염탐꾼이 아니라 (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4. 관리인이 큰아들부터 시작하여 막내아들에 이르기까지 뒤지자, 그 ( )이 ( )의 곡식자루에서 나왔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저마다 나귀에 짐을 도로 실은 뒤, 그 성읍으로 되돌아갔다.
5. 벤야민을 대신하여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형제의 이름은 무엇인가? ( )
6. 이집트로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무엇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는가?

\* 창세 47,27-50,26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7. 야곱의 유언은 무엇이었는가?
8. 야곱이 아들로 삼은 요셉의 두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 ) . ( )
9. 야곱의 열두 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이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시오.
10. 야곱이 죽은 후 자신이 묻히고자 원하였던 장소는 어디인가? ( )
11. 아버지가 임종한 후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후환을 두려워한다. 이런 그들에게 요셉이 한 대답과 행동은 무엇인가?

### 12. 요셉의 유언-창세 50,24-25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 )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 )에서 이끌어 내시어 ( )과 ( )과 ( )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 )께서 반드시 ( )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 )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 \* 도전 문제

창세 45,5-8을 읽고 요셉의 영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고통과 시련을 앞세우지만 종국엔 구원을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요셉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온 시련에 대한 불평으로 뒤에 올 하느님의 큰 섭리하심을 읽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묵상해 봅시다.

###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요셉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우리의 눈에는 절망으로 보이는 어떤 불행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 안에서 이런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느님의 전능과 선하심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후 예상치 않았던 오히려 더 큰 결과를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까? 짧게 나누어 봅시다.

## 소공동체 기도문

### 소공동체가

정수 정현 현서 작곡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녀...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할 게 노 래 하 자 일 렬 무 아

중 - 기 하 고 봉 사 하 자 세 상 모 두 에 게

마 음 보 - 아 기 도 하 고 함께 나 가 자 천 국 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